

장원호 박사, Third Mutual Board Director로 선거에 출마!

지난 2005-6년도에 한인회장을 역임하여 한인회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셨던 장원호 박사께서 오는 Third Mutual Board Director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3년이 임기인 TMBD의 직은 많은 시간과 열성을 요구하는 자연 봉사적 성격의 명예직이다.

지난번 선거에서는 중국계 여성 Rae Tso가 입후보하여 최다득표로 당선됐고 첫 동양계 Board Director로서 우리 동양계의 의사를 Board Meeting 등에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장 박사께서 당선이 되면 11명의 Board 중에서 동양계가 2명이 되므로 우리의 권익을 보호, 증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번 선거의 예로 11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4명이 당선 되었고 이번에도 많은 입후보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임기 만료된 4명의 Director 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리게 될 것이다.

선거는 후보 서류제출이 8월 말경이며 Third Mutual 주민들이 오는 10월에 직접선거로 하게 되어 있다.

장 박사의 당선을 위해 현재 선거후원회가 조직되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후원회장으로 조셉 최씨와 장 기화씨께서 공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다.

장 박사께서는 이미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끝내셨으며 지방신문인 "The Globe"에도 책 소개와 더불어 입후보자의 소신을 밝힐 것을 기획하고 계시다.

후원회는 8월22일에 Club House #7에서 있을 장 박사의 Book Signing Event를 비롯해 다 각도로 선거홍보를 준비하고 있다.

장 원호 박사가 쓰신 영어판 "Destiny of A Running Horse"는 이미 "삶의 넓이와 깊이가 너럭하다"라는 LA 중앙일보의 평을 받았으며 그의 "74년 삶의 여정을 담은 인생 여행기"로 출생에서부터 학창과 유학시절을 거쳐 언론학 석좌교수를 역임하시고 은퇴하신 후, 자신의 뜻을 찾으며 사시는 L.W.V에서의 삶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로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할 것임을 확신하고도 남는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에서 출간된 이 책은 Amazon.com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장 교수에게 직접 연락하여 책을 구입할 수 있다.

후원회에서는 반드시 장 박사께서 당선이 되도록 우리 동포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한인회에서도 장 박사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기로 했고 앞으로 필요에 따라 회원들의 도움과 중국계 회원들의 유대관계를 통해 그들의 지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문의나 연락이 필요하신 분은 changw@missouri.edu, 또는 whchang.tistory.com

전화 : (949) 458-3831 하면 된다.